

독자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시오.

독자마당

·보낼 곳: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6
·천리안: aum
·하이텔: 34713

KBS 방영 '서울대 출신 9명 출가' 를 보고

10월21일 오후 9시10분부터 KBS 제 2TV를 통해 방영된 '특종 비디오 저널-서울대 출신 9명 출가'의 출가'를 보고 편지와 PC통신을 통해 밝힌 불자들의 의견을 게재한다.

방송에 그런식으로 왜곡된 시각과 짧은 소견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시청자로서 프로그램 제작자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용의 일관성이 없었다. 시종일관 출가한 이들을 폄하하고 부정하더니 말미에서야 나레이터를 통해 구마하는 내용을 내보내는 등 제작자로서 동정력이 수준이하임을 지적하고 싶다. 환석희(하이텔 VZ447055)

출가동기·과정 외면 불교 신앙행위 왜곡

이 방송에서 제작자는 불교를 사아비 종교 취급하고, 출가한 서울대 출신 9명의 스님들을 마치 광신도인양 왜곡되게 그리고 있었다. 출가자들의 출가동기와 과정, 그에 따른 번민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잘 나가던 내 아들이 필경 누군가의 땀에 빠져 출가했다. 흑막을 밝혀내고 내 자식을 찾아다오"라는 부모의 하소연을 비꼬듯 다뤄 그들의 '가솔 청소'쯤으로 폄하시켰다. 또 범죄자들을 좇듯 그들의 소재지를 차례차례 추적해 나가기도 했다.

지각있는 방송인이라면 공중과

불교 비하내용 일관 제작자 편견 드러나

우선 나는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이긴 하지만 불교 동아리와는 전혀 관련없는 사람임을 밝힌다. 21일 방영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첫째는 방송 내용의 주제가 문제제기의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가이다. 과연 서울대생이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학생들이었다면, 또 불교계로의 출가가 아니라 타종교로의 출가였다면 이런 일도당도한 내용의 방송이 제작 되었을까? 불교에 대한 제작자의 편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둘째는 이날의 방송은

치열한 구도 수행자 사이비 광신도 몰아

'서울대 출신이 왜 출가를 했는가?' 라는 이유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분명 출가자를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종 비디오저널'이 출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려 했다면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더 달디단 속세의 꿀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용감하게 버랑위로 밧줄을 타고 올라간 그 용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을 것이다. 마치 그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처럼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취재한 행동은 가장 치열한 인간들이나 할 것이다.

윤형철(하이텔 Takoh)

상부상조 미덕 살려 북녘기아·추위 돕자

갑작스럽게 닥쳐온 추위에 겨울 옷을 꺼내 입고서도 '춥다'는 소릴 무의식적으로 하게된다. 하지만 오랜 굶주림에다가 부실한 몸으로 이 겨울을 맞고 있을 북

녘동포를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추위에 수신을 떠는 것이 사뭇 부끄럽다.

경제불황에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황이 '우리도 힘드네 북한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다'는 말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북한의 식

량난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려울수록 나눠갖고 서로 의지했던 옛조상들의 미덕을 떠올려 보자.

북녘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맞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손정일(북녘동포돕기물교추진위원회 홍보처장)



젓더미로 변한 파주 용암사

이교도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방화가 씀바귀 석불로 유명한 용암사 용암사에서 또 발생했다. 10월 21일 재가 되어 이르러지나 평구는 대웅전 구조물들, 특히 부처님의 법음을 삼고 지옥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세백 아들을 갈랐던 법종의 녹아버린 찻물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님을 절실히 느꼈다. 사할 대중들이 화재를 감지하기도 전에 이미 먼 곳에서 소방서가 아닌 경찰서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또한 종교 범죄자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런데도 관계당국에서는 상황논리 속에서 화재의 원인을 누적으로 묻고 가는 것은 언젠가는 준엄한 인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각성할 일이다.

■ 불자들의원들께 ■

"사찰문화 보호제도 마련을"

국정감사와 국회활동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신한국당,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정당마다 불자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불자모임이 선거때가 되면 조계사를 방문하고 종정스님을 예방해 불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구성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불자 의원으로서 한뼘 스스로 되돌아 보며 책무를 다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찰문화가 곧 전통문화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종교를 떠나 우리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절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각각의 종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현실적 영평을 보장하는 일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국가발전에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 불자'가 아니라 진정한 '불자 정치인'이시길 바랍니다.

영관(서울 중로구 홍지동 무량정사 주지)

현대불교를 읽고

어리석음과 교만함에 각성을 촉구한다. 한연수(경기도 고양시)

특정종교용어 방송 개탄 '공인발언 신중' 지적 공감

요즘 추수 국가대표팀 차범근감독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146호에서도 시원하게 짚어주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10월5일 일본에서 열린 WBA J.L.급 타이틀 전 TV 생중계에서 해설자로 나온 역대 챔피언 홍수현씨는 "승리의 하나님께서 최용수선수의..." 했다. 또 얼마전 모 TV 방송에서 아침뉴스 시간에 이효제 농림부장관은 "일맛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공과 사를 구분치 못하는 일부 공인의

거사불교 특집호 유익 '처사' 호칭 시정 당언

우리 불교집안에서는 엄연히 계를 받아 불명이 있는 거사들을 유교식으로 처사(處士)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다. 현대불교신문 146호가 거사불교를 특집으로 진단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해 대단히 공감했다. 특히 재가자들 사이에서 보다 스님들이 더욱 자주 '처사님'하고 사용하시는 것 같다. 자기 식 이름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한 호법이고 포교이다. 영형관(조계종 본사서 강서포교원 원신선원 수석교관)

만화

귀신

이향원

두 귀신의 싸움

옛날 비사사라는 두 귀신이 있었다 이들은 상자, 지팡이, 신 한 켤레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었지만 해가 지도록 해결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두 귀신에게 물었다

그 상자와 지팡이 신이 뭐길래 그처럼 싸우는가?

이 상자는 의복이며 음식, 침구등 생활도구를 모두 만들어 내고

이 지팡이는 잠으면 어떤 원수도 감히 덤비지 못해 항복 하고

이 신은 신기만 하면 어디든 마음대로 날아 다닐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음, 정말 진귀한 물건이군

너희들이 그 물건에서 조금만 떨어져 주면 내가 둘에게 공평히 나누어 주겠다

공평!

그렇게만 해 준다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다투고 있는 물건은 내가 가져 간다

아니! 저 저놈이

이제 너희들은 다투지 않아도 될것이니라

비사사라는 귀신은 온갖 마귀와 외도를 말한것이며

보시는 상자와 같아서 모든 생활의 방편은 그곳에서 나오며

선정은 지팡이와 같아서 원수나 번뇌의 적도 항복 시키며

계율은 신과 같아서 반드시 천상에 오를수 있다

번뇌 속에 있으면서 억지로 좋은 果報를 구하려는 것은 아무 소득도 없는 일!

선행과 보시와 선정과 계율을 지키면 곧 번뇌를 떠나 깨달음의 결과를 얻게 될것이다

마귀 외도

보시

계율

번뇌

여성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엔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뒷발이 겹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같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활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뼈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번비가 있다. ()
- 18. 당노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향비를 사용한 체담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 안저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사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이로부터 피부가 고요하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이는 것 외에도 잘 받고 기미도 알아지고 활력이 살리는 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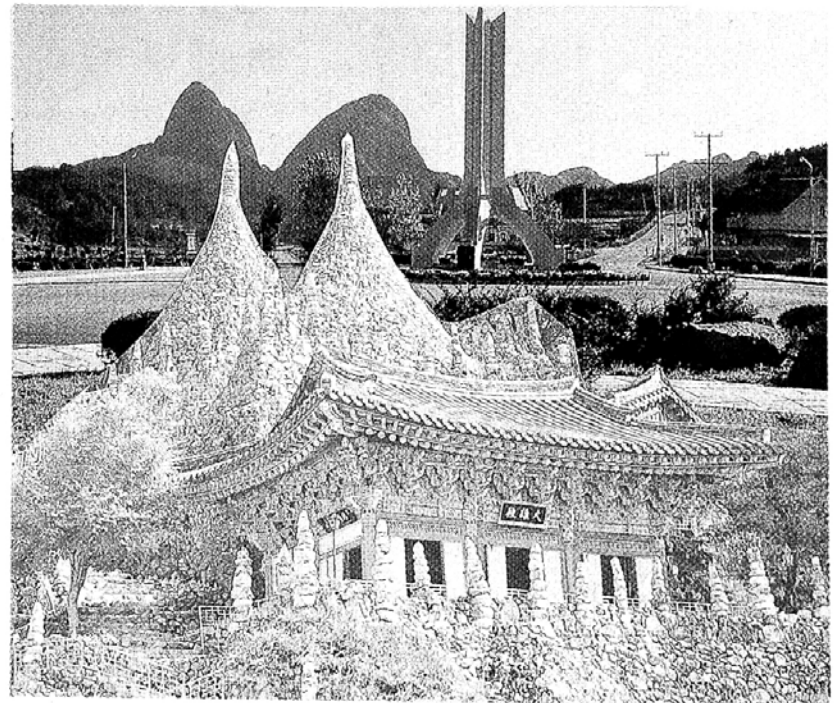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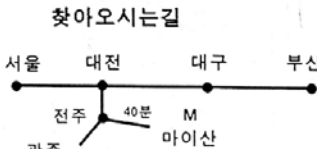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마이산방생탐사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물탕의 요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